

제주도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

-
1. 서론
 2. 제주도 본풀이의 전승현황
 3. 세 특수본풀이의 구연자
 4. 세 특수본풀이 분석 및 제의적 관련성
 5. 세 특수본풀이의 무속 서사시적 특징
 6. 제주도 특수본풀이 및 무속환경의 변화
 7. 결론
-

강 권 용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제주도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

강 권 용*

1. 서 론

제주도의 본풀이는 풍부하게 구전되고 있다. 학계에서 제주도본풀이를 일반적으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한다.¹⁾ 그런데 세 가지로 분류, 연구하는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본풀이가 있어 주목된다. 일명 특수본풀이라²⁾ 불리는 것들로 1930년대와 1960년대 채록되었다. 채록 수가 극히 적으며 현재 제의에서도 불려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라 제주도본풀이 분류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취급되어 연구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였다. 초기 연구자들도 제의를 알 수가 없고 신격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도 그들의 연구대상에서 특수본풀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의 특수본풀이 연구의 한계가 조사의 지역적 편향성에 있다고 보아 구연자들의 지역을 재조사를 하였다. 30, 60년대 구연했던 서귀포 박봉춘 심방 집안과 조술생 심방이 활동했던 북제주군 한경면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특수본풀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제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제보자를 통해 특수본풀이들이 어떤 제의에서 불려졌고 어떤 신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특수본풀이의 연구는 이 본풀이가 제주도 본풀이의 사족(蛇足)이 아니라 제의에서 불려지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신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제주도 본풀이의 다양성을 입증

*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1) 진성기, 1980, 「본풀이편」, 『탐라의 신화』, 평범사, 132쪽.

장주근, 1986,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346~347쪽.

현용준, 1992,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쪽.

2) 진성기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 처음으로 분류하였다.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본풀이들의 소멸과 축소과정을 바탕으로 특수본풀이가 제의에서 왜 해체되었는가의 필연성을 규명할 것이다.

2. 제주도 본풀이의 전승현황

이 장에서는 제주도 무속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929년 조선총독부 조사보고서를 통해 특수본풀이가 처음 채록될 당시의 제주도의 무속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무속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 서부의 무속 붕괴 현상이 카톨릭의 유입과 관계 있음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해 카톨릭의 포교 상태와 신앙민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³⁾ 또한 기존 자료에 특수본풀이로 채록된 12편의 무가들의 자료적 가치를 살펴 이 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제주도 무속의 변화

현재 제주도 무속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제주시,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서귀포에 이르는 동부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편중된 조사 활동은 동쪽 지역이 제주도 무속의 중심지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리고 현재 무속의 연행도 동쪽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동쪽은 무속제의가 활발하고 서쪽은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애초부터 그러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29년 9월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사된 『생활상태조사-제주편』은⁴⁾ 일인 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구체적으로 조사된 제주도 무속 상황 자료집으로 현재의 제주도 무속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본풀이들이 채록되던 시기의 무속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를 보면 유독 인구가 많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총 무속인의 1/3가량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무속인 비율도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다. 이런 현상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많은 곳이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섬의 서쪽인 한림, 한경면 지역이 인구도 많고 무속인 수도 평균이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본향당의 근원지인 송당(松堂)이

3) 2002년 3월 29일 제주도 교구청을 방문하고 4월 1일 한경면 신창성당을 방문 조사하였다.

4) 조선총독부, 1929, 「문화」, 『생활상태조사-제주도편』, 조선인쇄주식회사, 101~112쪽, 154~155쪽.

지역 분류	제주 (제주)	신우 (애월)	구우 (한림환경)	대정 (대정)	중 (안덕)	좌 (중문)	우 (서귀)	서중 (남원)	동중 (표선)	정의 (성산)	구좌 (구좌)	신좌 (조천)	계
女 巫	45	18	34	8	11	3	14	4	10	12	9	19	190
賣卜者	26	8	14	4	2	1	5	1	2	1	3	6	74
祈禱者	140	37	56	25	32	15	18	13	15	10	23	28	416
총 무속인	211	63	104	37	45	19	37	18	27	23	35	53	672
인 구 수	35,011	21,783	30,504	15,002	9,659	9,865	14,038	12,414	7,265	12,482	20,864	12,214	205,609
무속인비율	0.602	0.289	0.34	0.246	0.465	0.192	0.263	0.144	0.371	0.184	0.167	0.433	0.326

〈표 1〉 각 지역 인구 수 및 무속인 비율 자료 ⁵⁾

※ 총 인구수가 조사되어 있어서 무속인의 비율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있는 구좌지역이 인구에 비해 평균이하의 무속인이 살고 있어 의외임을 보여준다. 안덕과 표선은 적은 인구에 비해 높은 무속인의 비율을 보여 무풍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비율관계를 종합하면 무속인의 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 남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지역 건너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⁶⁾

이 도표를 통해 섬의 서쪽인 한림과 한경 지역도 예외 없이 무속이 흥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진성기의 조사를 통해 보면 당시 한경면 지역의 심방은 29명으로 제주시를 제외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살고 있어 당시까지만 해도 무속의 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서부 지역의 무속이 갑작스럽게 쇠퇴를 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서부 지역에는 동부 지역인 표선, 구좌의 토산당본, 송당본 같은 토속성이 강한 당신본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토속성이 강한 당신본풀이들은 지역민을 한데 묶고 무속연행을 유지시켜주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토산 알당본풀이 같은 경우는 모계를 통해 강한 전파를 보여 세력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본풀이가 없다는 피하다.

둘째, 카톨릭의 유입은 서부지역 무속의 붕괴를 가속화하였다. 물론 기독교나⁷⁾ 불교의 영향도 함께 거론할 수 있으나 불교는 무속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여신도

5) 괄호안의 지명은 현재 지역명이다. 원본의 일본어를 번역하였다.

6) 이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한 연구과제이다.

7) 기독교는 전도적으로 고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편향성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들은 무속과 불교 모두에서 신앙활동을 하기도 한다. 한불조약 이후 1899년 제주도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한경면 지역에는 신창지역에 1935년에 신창공소가 생기면서 포교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1952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1954년 한림본당이 설립되면서 제주도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신창지역의 신자가 2,200여명이며 한림지역은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동부지역인 성산포가 1973년, 남원과 표선이 1997년, 조천이 1999년 본당으로 승격하는 것과는 최소 20여 년에서 최대 40여 년의 차이를 보이며 신자 수는 3배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 본향당의 무조격인 송당(松堂)이 있는 구좌지역은 본당조차 없는 상황이다.⁸⁾

이런 상황은 동부 지역이 아직도 토속적 종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반해 서부 지역은 새로운 종교인 천주교가 유입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에 깊이 퍼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반자체가 외래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당신앙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톨릭의 유입이 신앙형태를 역전시킨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나. 제주도 본풀이의 분류와 특수본풀이

1930년대 일인학자에 의해 처음 채록이 시작된 제주도 본풀이들은 1950년에서 1970년대 사이에 장주근, 현용준, 진성기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채록한 제주도 본풀이들을 나름대로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이다.

일반 신본풀이는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으로⁹⁾ 제주도 전역에서 동일하게 불려지며 집에서 하는 큰곳에서 대부분이 불려지며 그 서사내용이 방대하다. 그 내용은 세상의 개벽에서 인간의 탄생, 삶, 죽음에 이르는 일생의 문제이다. 제주도의 향토적인 소재보다는 본토의 무가나 설화와의 친연성이 보이고 있어 자생적 본풀이라기 보다는 본토의 영향을 수용하여 변형시킨 본풀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락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松堂里)는 제주도 당신앙의 근원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송당본향당의 수립 남신과 농경 여신의 갈등은 문명발달의 과정을 보여 주는 본풀이이다.

당신본풀이에서 당신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한라산, 바다 등 토착적 지명들로 이루어졌으며

8) 천주교 제주교구, 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빅벨.

9) 현용준, 앞의 책

마을의 신앙민들을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로 구분하여 마을의 설촌(設村) 배경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과의 관계는 모계를 통해 끊임없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¹⁰⁾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당제일에 맞춰 당을 찾는다.

조상신본풀이는 집안 내지 일족(一族)의 수호신 내력담으로 모시는 신을 보통 일월조상이라 부른다. 이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 내지 일족에서만 전승되기에 그 집안의 단골심방만이 알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경우에¹¹⁾ 1981년도에 집안에 우환이 있어 곳을 한 단골이 20년 후 다시 곳을 하려 하니 당시의 단골심방이 돌아가시고 없자 당시 같이 곳을 했던 타지역 심방을 다시 불러 다시 곳을 하였다. 이런 모습에서 단골은 어떻게든 자기 집안과 관계를 맺은 심방만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더욱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본풀이는 진성기에 의해 1960년대 처음 분류되었다.¹²⁾ 열두 개의 무가들을 특수본풀이라고 분류하였지만 제의와 신격을 알 수 없다는데 더 이상의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특수본풀이라 명명된 12개의 무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제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동방세기본>은 <차사본풀이>에서 현재에도 불려지고 있으며 <영감본>은 신격이 도깨비로 <영감본풀이>에서 불려지고 있다. <웃당본>과 <알당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에서 단골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토산당본풀이>이다. <산신본>은 중산간 지역의 축산을 행하는 지역에서 채록되어진 본풀이이며 <조왕본>은 부역신인 조왕할망에게 비는 고사 때 흔히 불려지고 있으며 큰곳에서도 곳이 끝나갈 때 행해진다. <용왕본> 및 <열두선양본>은 영등맞이 때 불려지고 있으며 <십이대왕본>은 죽은 자의 영혼천도를 위한 곳인 “시왕맞이” 때 불려지는 것으로 저승을 지키는 열두 대왕을 일컫는 말이다. <삼두구미본>은 제주도의 이장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무덤의 시신을 먹는 괴물에 관한 이야기로 남제주군 안덕면 지역에서 “와라진 귀신”이란 설화가 채록이 되어 있어¹³⁾ 본풀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서사성이 없이 신명만을 나열한 것들로 본풀이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 신격이 토산본향당분을 제외하고 일반신본풀이에 등장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에

10) 토산알당본의 경우는 모계를 통한 전파가 가장 뚜렷한 당본풀이이다. 이로 인해 토산출신 여자들이 살고 있는 타지역에서도 이 당신이 모셔진다.

11) 2000년 4월 18일~22일간 남제주군 남원읍 위귀리 김○○씨의 사당큰곳을 조사하였다.

12)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의 구성을 보면 일반본풀이, 신당본풀이, 특수본풀이, 초감제·하정·푸다시, 기타, 개설 순으로 되어있어 제의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혼합되어있다.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구비문학대계 9-3』, 고려원, 624~633쪽.

있어서도 제주도 토착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향당본풀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본풀이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세민황제본>, <원천강본>, <허궁애기본>이다.

3. 세 특수본풀이의 구연자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본풀이들을 구연한 심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연자의 나이, 성별, 무가계(巫家系), 무업(巫業)의 습득과정 등은 본풀이 자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에 이루어진 본풀이 조사는 자료 채록에 집중을 하여 성별과 이름 정도를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수본풀이를 구연한 심방들에 대한 사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필자는 특수본풀이를 구연한 박봉춘 심방, 조술생 심방, 강을생 심방, 오인숙 심방에 대한 사항을 밝히도록 하겠다.

박봉춘 심방을 조사한 사람은 일인학자인 秋葉隆이다.¹⁴⁾ 1931년 10월 남무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신화 16편을 채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필자가 현지에서 조사한¹⁵⁾ 결과 현 지역명으로 서귀포시 정방동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서귀포 심방으로 조사 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1901년(辛丑年)이며 그의 나이 31살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박봉춘 심방은 21대째 예촌당을 맨 무가계이다. 그의 조상이 제주로 입도(入島) 할 때부터 대대로 심방일을 하였다니 그의 무가계는 제주도 제일의 무가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박봉춘 심방의 무가계는 예촌당본풀이와¹⁶⁾ 관련이 있다. 현재 조사된 제주도 당본풀이 중 예촌당본풀이에 그의 무가계와 관련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중 필자가 조사한¹⁷⁾ 본풀이를 살펴 보겠다.

예촌본향 죄정첩서. 이제 산 앞 산 뒤 나무 뚫고 흩어진 신우협전이 제주낙형 입대헌 조상은 어 오늘날은 삼천백매 탕 산 앞 산 뒤 돌단 물을 다 저 삼천백매뜨서 물발을 뿌사 깎어지난 물우이서 즙을 자는 산신전

14) 秋葉隆, 沈雨成 옮김, 1993, 「서설」, 『朝鮮民俗誌』, 東文選, 37쪽.

15) 2002년 3월 31일 박봉춘 심방의 며느리인 서귀포시 이인옥 심방을 면접 조사하였다.

16) 현재 예촌 마을은 신례리(新禮里)와 하례리(下禮里)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상태이다.

17) 필자가 2002년 3월 31일 예촌당 맨 심방 이인옥 심방에게서 채록한 것이다.

산신백관님이 꿈에 선몽허기를 날라그네 신하여래 예촌강 새반아당 울쇠짓고 삼맹디 지영 예촌본향 죄정허라
셋아덜랑 불목리 조죽이강 죄정허라 죽은아덜랑 위미리랑 죄정허라 삼천백매또 예촌본향 한집님은 월광단에
조화허고 아광단에 조화허고 노단착엔 황해물색 청매를 걸치고 왼착손에 월광단 백매를 흰 월광단 양단
걸치고 해연 7월제 되민 열나흘날 7월 마풀림 대제일 받으네다. 영등2월 되민 초여드레 영등굿 험니다.

박봉춘의 무가계는 예촌 마을에서 당맨 심방일을 하고 있다. 원래 박기석 심방이 집안의 종손으로 입도(入道) 이후 박기석 심방까지가 적통으로 연결되어있었으나 5촌당숙인 박봉춘 심방이 먼저 당을 매었다가¹⁸⁾ 1957년에 돌아가시자 그의 5촌 조카인 박기석 심방이 22대째 당을 매었다가 돌아가셨다. 지금은 박봉춘의 며느리가 당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¹⁹⁾ 박봉춘의 며느리 또한 나이가 들었으며 오랜 동안 허리 병을 앓아온 상태라 박씨 가문의 무가계는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다.

조술생 심방은 1906년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1리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한경면 지역은 무속이 많이 쇠퇴한 지역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폈듯이 조술생 심방이 심방 일을 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조술생 심방의 딸과 전화 인터뷰를 한 바로는 그녀의 가계는 무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²⁰⁾ 일제시대 남편이 도일(渡日) 후 호구지책으로 심방 일을 하게되었다 한다. 늙어서는 무업(巫業)을 그만 두었다가 88세가 되던 해 1997년 9월 8일에 돌아가셨다. 조술생 심방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와 <세민황제본풀이>는 그녀가 56세인 1961년에 채록되었다. 필자가 조술생 심방 밑에서 굿을 함께 했다는 변○○ 심방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²¹⁾ 한경면은 뿌리 있는 심방이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심방들도 이렇게 말한다.²²⁾ 대부분의 심방이 당대에 입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는 한경면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³⁾

강을생 심방은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1964년 조사당시 나이가 75세로 1890년 생임을 알 수 있다. 한국구전설화를²⁴⁾ 보면 강일생(姜日生)으로²⁵⁾ 나와있는데 같은 제보자로 그녀가 구술한 내용이 모두 곳에서 불러지는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 진성기, 1993, 「신당과 당신」, 『제주도부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68~169쪽.

19) 2002년 3월 31일 현지 조사를 통해 박봉춘의 며느리인 이인옥 심방을 만나 조사했다.

20) 2001년 6월 27일 조술생 심방의 딸 이○○(66세)와 전화 통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1) 2002년 3월 31일 제주도 현지 조사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22) 2002년 3월 29일 양창보 심방과의 면담

23)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보기로 하겠다.

24) 임석재, 1992, 「제주도편」,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기본적으로 본풀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심방인 것 같다.

오인숙 심방은 1927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77세로 태어난 마을인 세화리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의 무가계는 고부세습무의 형태이다.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까지 고부세습의 형태이며 한 대를 넘겨 손녀인 오인숙 심방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형태이다. 오인숙 심방은 38세에 입무하였다. 몸이 아프고 다른 가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짐을 보면 점쟁이들이 무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심방의 길에 들어섰다.

특수본풀이를 구현한 심방들이 제주도의 서부지역인 한경면과 동쪽인 구좌읍 그리고 남쪽인 서귀포에 거주하던 심방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입무의 형태도 세습무와 강신무 모두에게서 채록이 되고있어 특수한 무가계에서만 채록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세 특수본풀이 분석 및 제의적 관련성

가. <원천강본풀이>

<원천강본풀이>를 구현한 각편에는 박봉춘 구현본과²⁶⁾ 조술생 구현본이²⁷⁾ 있다.

박봉춘본의 화소를 보면 육지의 설화와 제주도의 무속이 섞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탄생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남신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 이는 지상용출(地上湧出)을 말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들어온 신들을 제외한 제주도 남신들은 지상용출의 방법으로 한라산에서 탄생한다. 한라산 출생이 확실한 본향당이 당수(堂數) 28개에 신수(神數)가 45개로 파악되고 있다.²⁸⁾ 이렇게 많은 당신이 지상용출을 하는 것은 제주도 고유의 신 탄생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원천강본풀이>의 탄생부분은 제주도 당신화의 지상용출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학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구려 신화 “고주몽” 신화에 나오는 부분과 유사하다. 삼국 유사 기이(奇異) 고구려편에 보면 금와왕이 알을 “왕이 개, 돼지에게 던져주니 모두 먹지

25) 임석재 선생은 제주도 조사를 하는 중 진성기 선생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의 책 서문에 밝혔다. 그리고 진성기 선생도 필자에게 임석재 선생에게 강을생 심방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하였다. 강일생이란 이름에 대해서 진성기 선생은 강을생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성기 선생의 채록본에 나온 강을생으로 하겠다.

26) 亦松智晟·秋葉隆 공저, 심우성 譯, 1991,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27) 진성기, 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8) 현용준, 1992, 『제주도 당신화고』, 『부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93쪽.

(가) 박봉춘 구연본	(나) 조술생 구연본
오날이가 강님드름에서 솟아났다.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한다.
학의 도움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원천강 남편을 죽이려 하자 장독을 파고 들어가 공부를 한다.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오날’이라고 지워준다.	나라에서 꾀를 원천강이 남편이 있는 곳의 독을 열게 하여 남편은 잡혀간다.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알았다.	남편이 잡혀가면서 원천강이나 보며 살도록 한다. 부인은 그 후로 원천강이라 한다.
장상, 연꽃, 뱀, 매일을 만나 여러 문제를 물음 받는다.	
세 공녀를 만나 지혜와 축도로써 물음 대신 퍼준다.	
원천강에 도달하였으나 문지기에 의해 들어가지 못해 운다.	
부모를 만나 물음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한다.	

〈표 2〉 원천강본풀이 각편 자료

않았고, 길에다 버렸더니 마소가 피하였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 짐승이 덮어주었고”라는²⁹⁾ 부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도 씻김굿 중 오구굿에 보면 오구부인이 내버려둔 ‘베리 덕이’가 죽지 않고 학에게 보살핌을 받는 부분도 이와 유사하다.³⁰⁾ 동물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 이름이 쉽게 지어지는 경우는 무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초공본풀이>에서 노가 단풍애기씨는 애기를 낳고 밖을 보니 단풍이 빨갳게 진 것을 보고 지었으며 바리공주의 어원이 버려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같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애기 낳제 흥난 즈 자지고 공이 들어시매 일흠이랑 즈 칭비로 흥기가 어떻 흥 우짜?”³¹⁾ 자청비를 낳기 위해 마음이 떨리고 공이 들었으니 자청비로 짓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자청비란 이름에서는 세경신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오날이”도 낳은 날로 이름을 짓자고 하였으니 신격 부여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무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름을 짓는 형태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물음 받는 내용은 구복여행담과 관련이 있으며 이 본풀이의 중심 화소이다. 구복여행담은 광포유형의 설화로³²⁾ “석승”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석승이 복을 구하러 서역국이나

29) 일연, 최호, 1996, 『제1권 기이 제1』, 『삼국유사』, 흥신문화사, 26~27쪽.

“王棄之與犬猪皆不食 又棄之路牛馬壁之棄之野鳥獸覆之”

30) 이경업, 2000, 『박경자 창본 씻김굿』, 『씻김굿 부가』, 박이정, 154쪽.

31) 진성기, 1991, 『일반신본풀이』, 『제주도부가본풀이사전』, 집문당, 239쪽.

옥황상제, 부처, 점쟁이들을 찾으러 가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과부를 만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음 받고 두 번째로 노인을 만나 꽃나무에 왜 꽃이 안 피는지 물음 받는다. 세 번째로 이무기를 만나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음 받는다. 석승은 서역국에 도달해 부처로부터 이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을 얻는데 이는 원천강이 장상, 연꽃, 뱀, 매일을 만나서 물음 받고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이 같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행의 주된 목적이 다르다. “오날이”는 이해타산이 없이 단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구복여행담의 “석승”은 출발 동기가 자의에 의한 재물의 획득에 있다.³³⁾ 잘사는 방법을 알기 위한 2차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이는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담의 여행과정 화소만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성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선녀의 물건을 것을 돕는 것은 제주도 본풀이에서 흔히 보이는 관습어구로 대부분의 <세경본풀이>에 채록되어 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선녀의 문제를 지상의 인간이 해결해 줌으로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오날이”가 도달한 문이란 것은 무속에서 다음 세계로 가는 중간지점이 된다.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나 제주도 곳곳에서 군문열림 제차나 맞이의 질침 제차를 할 때 문을 하나씩 여는 것은 같은 관념일 것이다. 그리고 “오날이”가 문 앞에서 그 동안 살아온 과정을 말하면서 울며 하소연하는 것은 군문열림 제차 전에 행하는 연유담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박봉춘본은 육지의 구복여행담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무속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술생본은 아기장수형 설화와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아기장수 설화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아기장수형 설화는 빈번히 채록되고 있다.³⁴⁾

제주의 아기장수형 전설의 특징은 날개를 제거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본토의 아기장수형 전설이 현실적인 죽음을 용마의 출현을 통해 민중의 가슴속에 아기 장수의 영상이 살아있게 하는데 반해, 장수는 죽더라도 인간만은 살아 있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³⁵⁾ 원천강 남편이 왕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아기장수가 역적으로 물리는 것과 같다. 역적이

32) 한국구비문학대계, 「1-3 : 58~65쪽, 2-1 : 82~91쪽, 4-2 : 737~747쪽, 4-5 : 321~326쪽, 7-8 : 1191~1193쪽, 1197~1199쪽」 7편이 채록되었다.

33) 조희웅, 1996, 「한국 설화의 유형 연구」,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89쪽.

34) 현길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익사.

35) 현길언, 앞의 책, 139쪽.

된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된다는 것으로 이 둘의 지향점은 같아진다. 결국 아기장수의 날개는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땅에서부터 떠나 하늘로 오르게 하는 것이다.³⁶⁾

원천강 남편이 사령이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장독 안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는 장독 안은 아기장수가 재기를 노리며 대군을 일으키는 무덤 안과 같다. 남편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를 방해하려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남편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략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아내는 결국 남편이 숨어 있는 장독을 가르쳐 주고야 만다. 이는 아기장수가 묻힌 곳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인 여성이 이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성에 의해 그들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사흘만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인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아기장수 또한 2차 죽음을 당하고야 만다. 그러나 여기서 이 둘의 결말은 달라진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보던 “원천강” 책을 주며 호구를 해결해 준다. 아기장수형 설화에선 용마가 아기장수의 죽음을 슬퍼하여 돌이 되었다는 결말과는 판이하다.

두 각편의 화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는 “오날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떠나는 내용인데 반해 (나)는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하다가 좌절되는 내용으로 서사구조상 두 본풀이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제주도 지역에서 같은 제목에 전혀 다른 서사구조를 가진 본풀이가 채록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각편이 마지막에서 “원천강을 등사하였다.”와 “원천강을 보며 산다.”는 구절이 있어 주목된다.

원천강이 무엇이기에 각편 모두가 원천강을 언급하며 끝을 맺고 있는가? 원천강을 등사하였다거나 원천강을 보며 산다는 결론은 어찌면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의 신격을 나타내는 구절일 것이다. 그럼 원천강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제주도의 다른 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같은 무속권(巫俗圈)에서 신의 역할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신격은 동일하게 불려진다. 따라서 원천강이 제주도 무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원천강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원천강이 주로 등장하는 일반신본풀이는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이다. 두 본풀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자식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이 기자(祈子) 기원을 위한 과정에서 동개남 은중절 중(仲)에게 자식의 유무 판단을 가리기 위한 부분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원천

36) 현길언, 앞의 책, 127쪽.

강은 점서(占書), 점술가(占術家)로 나오는데 “원천강이 쓴 점서”나 “원천강이란 점서”를 통해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흥미있는 것은 중이 이런 점서를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는 박봉춘본의 말미에 나온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한다.”라는 내용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원천강이 점과 관계된 인물이거나 점서로 나온다.

그리고 당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는 팔자(八字)를 뜻하는 단어로 나온다. “무당이 되는 팔자를 타고났다거나 한이 많아 팔자와 사주를 거스를 아이다.”라는 것은 원천강이 “운명”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주도 무속에서는 원천강이 인간의 사주팔자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천강본풀이>의 “오날이”와 “부인”이 사주팔자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는 결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심방의 기능 중 점사적(占師的) 기능과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는 <원천강본풀이>가 심방이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본풀이라는 근거가 된다. 특히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매일”, “장삼”이가 심방의 신긋에서 불려진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한경면 큰 심방인 변○○ 심방의 이야기를 살펴보자.³⁷⁾

신긋할 때 이 팔자긋인 사람 신올령

그냥 팔자긋인 사람이 신을 받아내려 신반아 노면은

혼자 들려키당 탁 신전덜에 얹어지민 이때 이 노래를 큰심방이 불르멍

“전싱긋인 성은 나뭇가의 날은 선설 어느 성진성편 외조편 심방 무당의 조순도 아니우다.

심방의 조순도 아니우다.”

영허여 가민 선심방이 노랠 부르는 사람이 목노양 울주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 신받지 못허여.

위 글을 통해 신긋의 천신일월맞이 과정에서³⁸⁾ 매일, 장삼의 노래가 불려짐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신긋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변○○ 심방이 “매일이 장삼이는 삼공주년국 본풀이 전상드 리라.”고 증언하는 것과 삼공본풀이 후반부에 맹인 부부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삼공본풀이가 일반

37) 필자의 2002년 3월 31일 변○○ 심방과의 대화과정에서 녹취한 것이다.

38) 큰긋에서 불도맞이 다음에 행하는 제차로 일월신은 보통 조상신을 뜻한다.

단골들의 운명에 대해 본을 푼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의 본을 푼다고 할 수 있다.

나. <세민황제본풀이>

<세민 황제본풀이>는 중국 당태종을 주인공으로 한 본풀이로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이 있다.

(가) 박 봉 춘 구 연 본	(나) 조 술 생 구 연 본
이승에서 죄를 많이 지은 세민황제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오늘은 달도 좋고 날도 좋은 날이다.
죽은 백성들이 물러와 복수하고, 빼앗긴 돈을 찾아달라고 한다.	매일과 장삼이 죽어 저승에 들어가니 품삯 거슬린 것이 창고에 가득했다.
이승사람 매일장상의 돈을 꾸어 갖고 이승으로 나온다.	세민황제가 저승에 가니 빛을 못 갚아 매일과 장삼에게 꺾 갚는다.
저승 궤에는 벗짚 한 묶음밖에 없어 이승에 나가서 적선을 해야한다.	인간으로 돌아온 세민황제가 매일이와 장삼이를 찾아 돈을 갚으니 영암 덕진산 깊은 물에 덕진다리 놓았다.
세민황제는 적선지도를 의논하여 호인대 사에게 극락세계의 팔만대 장경을 내어오게 한다.	덕진다리 놓아두고 만민에게 적선(積善)을 받아 극락세계 가고 저승부자 되었다.
호인대 사는 빠른개비를 만나 극락세계로 가 팔만대장을 얻어 세민황제에게 바친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매일장상을 불러 칭찬하고 적선환인지도를 행한다.	

<표 3> 세민황제 본풀이 각편 자료

박봉춘본의 <세민 황제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서대석이 구체적으로 행하였다.³⁹⁾ 『서유기』와 『당태종전』, <세민 황제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등장인물들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서사구조가 같고 등장인물 또한 차용한 흔적이 역력하여 『서유기』에서 『당태종전』, <세민 황제본풀이> 순으로 영향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조술생 구연본도 박봉춘 구연본과 서사구조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설화체가 아닌 가사체이며 서사성이 약화되고 생략된 부분이 많다.⁴⁰⁾ 특히 호인대사를 불러 팔만대장경을 내어오게 하는 부분이 없다.

두 각편을 종합하면 <세민 황제본풀이>는 두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뉘인다. 앞 부분은 악행을 저지른 세민황제가 지옥으로 떨어진 후 이승 사람 매일장상의 돈을 꾸고 이승으로 나온 후

39) 서대석, 1968, 「서사부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서대석, 앞의 논문, 108쪽.

적선지도를 하게되는 부분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황제이고 선행을 하는 것은 필부로 대조를 보인다.

후반부는 적선지도를 의논하여 호인대사를 시켜 팔만대장경을 갖고 오게 한다. 그러나 조술생의 구연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 불교적 색채가 약화되었거나 이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민황제본풀이>의 제의적 관련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소설로까지 읽혀졌던 이야기가 본풀이에 불려지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곳에서 세민황제의 이야기를 차용하면서 단골들에게 주려는 의도가 있거나 어떤 제차에 긴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도를 유추하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다시 죄를 갚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적 사고와 곳을 통해 지옥에서 이승으로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곳의 제차 중 시왕맞이에서 영혼을 불려내고 다시 위로하고 저승으로 보내는 과정은 이를 뒷받침한다.

<세민황제본풀이>의 제의는 언제 행해지던 것일까? 큰곳에서 이승 저승의 왕래는 강림 차사와 관련이 있다. 필자가 조사한 변○○ 심방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세민황제는 너무 인간덜에 나쁜짓을 한 사람. 피 벌 아 먹은 죄를 미련허는게 저심빚을 갚으라 세민황제는 저심빚이 많으니까 우리 인간도 죽언 빚 갚은 건 말할때.

그녀의 증언과 본풀이의 사실을 통해 <세민황제본풀이>는 차사영가 질철 때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서 세민황제가 살아온 역사를 푼다. 곳에서는 죽은 자의 이승에서의 잘못을 비는 제의가 필요한데 세민황제의 악행은 적절한 예시가 된다. 이를 통해 신앙민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술생본에 팔만대장경 찾기 화소가 빠진 것은 세민황제의 죽음을 통한 권선징악의 메시지에 팔만대장경 화소가 굳이 끼여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허궁애기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는 다른 본풀이들이 본토의 설화 화소를 수용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내용도 들어가지 않은 고유한 형태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본풀이는 현재에도 이 내용을 아는 심방들이 있어 그 존속성이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다섯 편이 조사되어 있다.⁴¹⁾ 지역적으로 한경면,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구좌읍으로 제주도의 전역에서 채록이 되었다. 채록의 간격도 거의 50년에 이르고 있어 오랫동안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공통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이승에서 자식 낳고 잘 살다가 저승으로 간다.
- ② 아이들 생각에 근심이 되어 운다.
- ③ 밤에는 이승 가고 낮에는 저승 오라고 하여 밤에 아이들을 돌본다.
- ④ 이웃 할머니가 아이들이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잘 빗어있어 의심한다.
- ⑤ 아이가 어머니가 밤마다 저승에서 내려온다고 말해버려 오면 얘기해 달라고 한다.
- ⑥ 실로 아이와 할머니를 연결하여 알린다
- ⑦ 할머니가 찾아와 허궁애기가 저승으로 못가게 말린다.
- ⑧ 할머니는 저승차사가 못 오게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숨긴다.
- ⑨ 저승차사가 지붕으로 들어와 허궁애기의 혼을 뺏어 가버려 허궁애기는 죽어버린다
- ⑩ 그 법으로 이 세상에 인간은 죽으면 다시 이승으로 못 내려온다.

죽어서 저승에 간 허궁애기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이승을 왕래하다 결국 이웃할머니의 꾀임으로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화소이다. 이런 공통화소와 달리 각 편의 특징적 화소들을 살펴보면 이오생 구연본은 허궁애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명(命)이 다되어 데려간다고보다는 저승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함으로 특이한 설정이다. 또한 액막이 제의의 의례적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저승차사들이 허궁애기를 잡으러 오자 밥을 짓고 인정을 걸어 잡혀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맹감분풀이>에서 스사만이가 명이 다 되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저승차사들에게 음식과 신발로 인정을 걸어 저승차사를 돌려보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강을생 구연본은 전반부의 콩대기팔대기 이야기와 후반부의 허궁애기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다. 콩대기팔대기 이야기는⁴²⁾ 콩쥐 팥쥐 설화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광포유형의 설화이다.

41) 이오생 구연본 - 진성기, 1980, 『탐라의 신화』, 평범사.

강을생 구연본 - 진성기, 1991, 『제주도 부가분풀이사전』, 민속원.

이방아 구술본 - 임석재, 1992, 『한국구전설화 제주도편』, 평민사.

윤추월 구술본 - 현용준·현길언,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오인숙 구연본 - 미발표 (김현선이 2002년 3월 26일 구좌읍에서 채록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련성은 없다. 전반부에서 허궁애기가 콩대기의 계모 즉 팔대기의 어머니로 나왔다가 후반부에서는 콩대기가 다른 각편의 허궁애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 본풀이 제목하고 주인 공이 맞지 않는다. 또한 다른 각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용상의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의적 관련성을 유추할 때 재생화소는 무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콩대기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시왕맞이에서 불러 질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다.⁴³⁾ 이방아 구연본에는 천지개벽의 과정에 나오는 해와 달이 두 개인 이야기가 나온다. <천지왕본풀이>의 화소로 세상이 무질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귀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수 있다. 차사가 허궁애기를 잡으러 오는 화소가 없이 허궁애기가 늦게나마 저승으로 가는 것은 공통화소에서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승, 저승의 왕래가 금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을 못 알아 듣게 한다. 이는 이승, 저승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윤추월 구연본은 이방아 구연본과 서사단락이 거의 같다. 동네 할머니가 허궁애기가 온 것을 알고 대처하는 방식에서 저승차사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궁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조적이며 사람이 죽어 이승의 일을 저승에 가서 얘기 못하게 하려고 소렴(小儼)할 때 흰쌀을 입에 넣는 장례풍습의 기원을 말하였다.

오인숙 구연본은 가장 최근에 채록이 된 것으로서 공통화소로 이루어졌다. 2002년에 채록 되어 그동안 불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던 그동안의 학설을 뒤엎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섯 개의 각편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적 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맹감본풀이>, <천지왕본풀이>와의 관련성 및 고부갈등 시원담, 장례풍습과의 관련성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의적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궁애기본풀이>의 내용이 저승과 이승을 왕래하는 화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오인숙 심방 및 강순선 심방이 “차사본풀이에서 동방 세기 다음에 불러진다.”는 증언은 이 본풀이의 제의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다. 그렇다면 <차사본풀이>에 허궁애기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차사본풀이>는 이승의 강림이가 뛰어난 용기와 지혜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데려와 사건을 해결해주고 저승차사가 되는 것이다.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42) 구비문학대계, <6-10 : 201~202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설화에 채록이 되어있다.

43)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고부갈등 시원담이 나타난다.

본풀이의 구성은 갖추게 된다. 하지만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삼천갑자 동방세기를 잡아오는 이야기가 첨부된다. 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부에 기록된 목숨보다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는 차사신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강림차사의 관점에서 보면 허궁애기도 저승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 저승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설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허궁애기”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와 아기들을 돌보는 것은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도 이승의 현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집안의 우환이 조상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생겼으며 굿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민들의 사고가 이를 입증한다. 특히 비명횡사했거나 객사한 조상들은 많은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왕맞이 제의 때 각별히 모시게 된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 다음에 불러짐으로서 차사신의 위엄과 저승법도의 엄격함을 신앙민의 사고체계에 각인시키며 사자(死者)가 이승 사람들의 불행과 관계되고 있다는 신앙민들의 믿음체계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현지조사와 본풀이의 분석을 통해 세 특수본풀이의 제의 및 신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곳에서 신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상신격이 유사한 다른 본풀이에서 보조적인 삽화로서 불러지거나 제의가 사라져 현재 곳에서 구연되지 않는 본풀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본풀이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고 제주도 본풀이로서 본격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5. 세 특수본풀이의 무속 서사시적 특징

가. 무조신의 일상화 과정⁴⁴⁾

“오날이”가 찾아가는 원천강은 “오날이”의 부모만이 사는 곳이라기 보다는 천상계의 제신들이 사는 신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날이”가 심방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으로서 보통 제주도 무속에서는 1만8천 신을 모신다고 하니 제신(諸神)들의 거처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을

44)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각편의 서사구조는 너무나도 다르다. (가)에서는 “오날이”가 원천강을 찾아가는 이계 여행담의 구조라면 (나)는 “부인”의 팔자 얘기이다. (가)에 무속적 요소가 많이 등장한 반면 (나)는 일상적 모습이다. 따라서 <원천강본풀이>의 무속서사시적 성격을 살펴보기에는 박봉춘본이 적합할 것이다.

찾아가 많은 신들로부터 심방으로서의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무조신에 대한 본풀이인 <초공본풀이>에 “유정승 떠님애기”라는 제주도 최초의 심방 이야기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

“유정승 떠님애기”도 여섯 살 나는 해에 육한대사가 지나가다 준 엽전을 갖고 놀다가 일곱 살에 무병이 들어 일흔 일곱에 무조신인 삼시왕에게 신긋을 받는다. 신긋을 받은 후 무당서를 받아 통달하고 무구, 무악기까지 받아 최초의 심방이 된다. 심방들은 곳에서 최초의 심방의 내력을 말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존재의 증명과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는 이와는 달리 심방의 가장 일상적인 기능중⁴⁵⁾ 하나인 점사적 기능만을 보여주는 신화라는 것이 부각되어 있다. 즉 점술책인 원천강이라는 점사책과 심방의 점술 기능이 까닭이나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골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날이”와 “유정승 떠님애기” 모두 사제자의 길을 가는 심방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유정승 떠님애기”가 무조신과 관련된 최초의 심방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날이”는 심방의 점사적 기능이 부각된 일반적인 심방들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술생본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원천강을 보게 되는 운명이 된다. 이것도 심방이 되는 한 예이지만 어떤 신화적 사고가 나오지는 않는다. 단지 심방 팔자의 일상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운명을 <삼공본풀이>가 이야기한다면 조술생본은 심방 운명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초공본풀이>의 유정승 떠님애기와 같이 최초의 무당의 이야기로서 신성성을 가지기보다는 (가)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심방이 되는 과정인 “오날이”의 이계 여행을 통해 신성성이 많이 상실되었고 (나)에서는 심방팔자로 일상화되어버렸다.

한편 본토의 무조신인 “바리공주”와 “오날이”가 이계여행을 통해 사제자가 된다는 공통점이 주목된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찾으러 여행을 한다면 “오날이”는 부모를 찾기 위해 여행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를 살리거나 찾은 후에는 무조신이 되거나 심방이 된다. 즉 이계여행을 통해 무속과 관련지어진다는 것이다.

나. 적선(積善)의 사고와 무속신화적 성격의 퇴화

<세민황제본풀이>는 죽은 세민황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환생담이다. 세민황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통해 이계여행담이라 볼 수 있으나 이승으로 나올 때를

45) 심방은 사제적 기능, 점사적 기능, 영매적 기능, 축의적 기능, 연예인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여행담이라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⁴⁶⁾

그보다는 환생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속신화에서 환생을 하는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다. 이들은 악인의 계략에 걸려 억울하게 죽는다. 그렇지만 다시 주인공들에 의해 살아나 신으로의 좌정을 맞게 되거나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환생담이 나오는 일반신본풀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세민황제는 이승에서 악행을 행하다가 죽은 이로서 환생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악인들은 철저히 응징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 응징은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세민황제본풀이>에는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악이 세민황제라면 대립되는 이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다수의 백성,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 선을 행하는 이가 매일, 장삼이지만 그들은 세민황제와 대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갈등의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소설인 「당태종전」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들은 본토의 설화를 기본구조로 하여 나름대로 신화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민황제본풀이>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변화를 시키지 않아도 제의에서의 의미를 신앙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적선(積善)이라는 불교적 도덕률과⁴⁷⁾ 상통한다. 절대군주로 군림했던 세민황제도 결국은 이승에서 적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장삼에게 재물을 꾸어야 한다는 것과 다시 이승에서 적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개 필부인 신앙민들에게 이승에서 선행을 베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악인인 세민황제도 적선을 행하면 죄가 사한다는 것을 통해 죽은 자들의 악행을 산 자인 신앙민들이 굿을 통해 사함을 비는 행위의 근거가 된다.

즉, 무속적 서사구조를 통한 권선징악이 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당태종전」을 받아들여 다시금 적선이라는 불교적 도덕률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저승과 이승 구분의 재인식

<허궁애기본풀이>는 특수본풀이로 다루려는 본풀이 중 가장 많은 각편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본풀이가 채록이 되고 있어 오랜 존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존속성의 원인을 추측한다면 제주도 굿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고형적 형태를 띠고 있기

46) 이계여행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민황제는 반대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고 있으며 여행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나 아무런 사건이 없다.

47) 고대경, 1997, 「살아가는 이야기」, 『신들의 고향』, 중명, 256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행적 형태는 제주도의 초감제 때 불려지는 <천지왕본풀이>의 잔형이 있다는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승과 저승 차지 시험의 신화적 의미는 이제 인간 세상에 삶과 죽음의 세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⁴⁸⁾ <허궁애기본풀이>가 이승과 저승의 구분과 관련되어 생성된 오래된 본풀이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허궁애기는 염라왕의 특별한 배려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었으나 밤이 가기 전에 저승으로 되돌아오는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허궁애기의 자의적 판단이기보다는 제 삼자인 이웃할머니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이웃할머니는 허궁애기가 다시 이승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인으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화적 관점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불명확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로 인해 저승과 이승의 구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해진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차지경쟁이 이승과 저승을 일차적으로 구분한다면 이웃할머니는 남아있던 이승과 저승의 불명확성을 이차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명확해진 이후 죽은 사람은 다시는 이승 사람과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굿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승과 저승의 교통의 가능성은 이 본풀이가 아직까지 존속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허궁애기본풀이>가 불려지는 제의가 <차시본풀이> 다음이라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차시는 죽은 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주로 하나 굿이 있으면 저승에서 죽은 이들을 이승의 굿판을 데려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무속적 사고의 소산이다. 죽은 사람 굿이란 제의에서 심방을 통해 이승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다. 표면상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죽은 사람은 굿을 통해 이승의 사람과 교통할 수 있다. 이런 무속적 사고는 본토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함경도 망목굿에서 불려지는 <도랑선비·청정각시>신화에서 죽은 도랑선비가 청정각시를 만나러 밤에 온다고 하는 것은 허궁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낮과 밤을 번갈아 오고가는 것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⁴⁹⁾ 그러나 <도랑선비·청정각시>가 부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죽어서도 만남을 이루는 망목굿의 핵심을 드러내는 반면 <허궁애기본풀이>는 저승법의 엄격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48)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2쪽.

49) 김현선, 1999,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42쪽.

6. 제주도 특수본풀이 및 무속환경의 변화

곳은 신과 신앙민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사제자가 존재해야 가능한 종교활동이다. 그리고 신의 이야기인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 곳관에서 단골들에게 들려진다. 따라서 본풀이가 계속 구연되기 위해서는 곳관이 살아있어야 한다. 곳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곳관을 지탱시키는 신앙민인 단골과 사제자인 심방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수본풀이들이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였는가를 살펴보겠다. 이들 통해 제주도 본풀이의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 곳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곳의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특수본풀이들은 곳에서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본풀이 안에 불려지는 이야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수본풀이들이 일반신본풀이에서 삽화로서 불려지는 경우이다. <세민황제본풀이>와 <허궁애기본풀이>가 차사영가 질철 때 불려지거나 <차사본풀이>다음에 불려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유추한다면 유사한 본풀이가 한 제의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제의 안에 중복되는 신의 내력담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더 완성된 이야기가 본풀이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차사본풀이>가 강림이가 차사가 되는 완벽한 서사구조를 가진 반면에 동방세기이야기나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신으로서의 내력담을 얘기할 수 있는 서사구조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강림이의 이야기에 첨가되는 삽화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심방들 간의 본풀이 전승이 단절된 경우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신곳에서만 불려지는 한정된 본풀이이다. 신곳은 심방이 평생 세 번을 행하게 되는데 입무 할 때 행하는 초신질, 이는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하는 이신질,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량일 때 하는 삼신질이 그것이다. 이는 다른 곳이 수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 비해 그 횟수가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곳과 같은 특수한 곳은 뛰어난 심방들이 주로 행하게 된다. 오직 큰심방이라 칭할 수 있는 심방들만이 행하고 있어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 구연자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 제주도 본풀이 중 곳에서 처음 불려지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고작 몇 명만이 이 두 본풀이를 구연할 수 있다. 이 두 본풀이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초감제 때 불려짐으로 아무 심방이나 부르지 못하고 큰심방만이 부르게 된다. 따라서 큰심방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들은 이 본풀이들을 전승받지 못하게 됨으로서 소실된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곳 자체가 적으며 곳을 행할 수 있는

심방도 한정되어 있어 그 소멸이 다른 본풀이에 비해 훨씬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굿의 외부적 요인이다. 제주도의 굿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본풀이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본풀이들은 생활의 변화로 인해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무속에 대한 관청의 단속으로 굿을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제시대 때 많은 당이 파괴되었다. 광복이후 경신회가 조직되면서 다시 굿이 활성화되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무구를 압수하고 굿 단속을 하였다. 당시 굿은 미신이다 하여 근대화의 걸림돌이며 타과의 대상이지 전통계승의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심방들은 언제나 숨어서 굿을 했고 단골들도 내놓고 굿을 할 수가 없었다한다. 이런 상황에서 굿의 모든 제차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굿의 제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심방들은 “두 일레 열나홀”이 걸려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최대로 해도 일반 가정에서는 5일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제차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중요하지 않은 특수본풀이류들이 불려지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단골들의 생활 변화로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전만 해도 제주도민의 생활은 1차 산업에 치중되었다. 그들에게는 농업을 관장하는 신과 바다를 관장하는 신, 가축을 보호하는 신들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세경신이나 영등신, 용왕신, 산신 등의 내력담은 중요한 본풀이로 불려졌다. 하지만 2, 3차 산업으로의 기반의 변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 도회지인 제주시, 서귀포시 사람들에게 세경신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신에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굿에 많이 들어가 세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인구유입, 통혼권의 확대, 외지진출 등의 인구이동은 마을이라는 지연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당신앙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조건이 되었다.⁵⁰⁾

셋째, 서양종교의 폭발적 증가이다.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제주도 무속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였다. 장년층 이상은 아직도 무속 종교를 믿는데 반해 청중년층은 불신하고 있어서 세대간의 종교적 구분이 명확하여 더 이상의 무속생활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종교적 구분은 제도교육에서 기존 종교를 정통종교로 무속신앙을 미신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데도 기인한다.

50) 하순애, 2001, 「제주도 민간신앙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제주도연구 제20집』, 제주학회, 162쪽.

이렇게 제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특수본풀이는 소실되었고 나아가 곳 자체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7. 결 론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제주도 특수본풀이들을 분석하여 제의적 관련성을 찾고 무속서사시적 재인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본풀이가 1930년대, 1960년대 채록되었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한경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특수본풀이가 최초로 채록이 되었을 1930년대의 제주도의 무속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1930년대 이전에 제주도 무속은 전지역을 통해 고르게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카톨릭의 수용은 한경면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의 무속을 급격하게 소실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무속의 채록은 1950~197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채록한 제주도 무속을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하였다.

이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 하였는데 <원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가 그것이다.

먼저 구연자인 심방들을 살펴보았는데 특수본풀이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입무의 형태도 세습와 강신무 모두에게 채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친강본풀이>는 각편이 두 개로 첫째 “오날이”의 이계여행담이다. 다양한 화소들로 이루어졌는데 본토의 설화, 제주도 본풀이가 혼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본토의 구복여행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여인이 하늘의 왕이 되려는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야기로 아기장수 이야기와 유사하다. 이들 모두는 심방의 팔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신곳에서 불려지던 본풀이이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소설「당태종전」을 차용한 본풀이로 지옥에 떨어진 세민황제가 매일장상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적선을 행하는 이야기이다. 권선징악적 의미를 지닌 본풀이로 차사영가 질칠 때 불려진다. <허궁애기본풀이>는 가장 많은 5편의 각편이 채록되어 있다. “허궁애기”가 저승에서 이승을 왕래하는 본풀이로 창세신화소인 저승과 이승의 구분이 나오는 고행의 본풀이이다. <차사본풀이>에서 동방세기 이야기 다음에 불려진다. 이를 통해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곳에서 신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상신격이 유사한 다른 본풀이에서 보조적인 삽화로서 불려지거나 제의가 사라져 현재 곳에서 구연되지

않는 본풀이로 정의할 수 있다.

특수본풀이들의 무속서사시적인 특징은 <원천강본풀이>는 제주도 무조신의 이야기인 <초공본풀이>와는 달리 신성성이 많이 탈락한 일반적인 심방의 본풀이이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소설인 「당태종전」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는데 무속적 서사구조를 통하지 않아도 적선이라는 불교적 도덕률을 신앙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저승과 이승의 왕래담으로서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일차적으로 구분하였다면 <허궁애기본풀이>는 이를 다시 구분 지어주는 본풀이이다.

마지막으로 특수본풀이들은 제의 내부적으로 독립적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본풀이 안에서 삽화로 불려지고 있어 소실되어 버렸다. 또한 특수한 제의에서 소수의 심방들에게만 불려지고 있어 전승의 단절이 다른 본풀이에 비해 쉽게 이루어 졌다. 제의 외부적으로는 1980년도까지 이루어진 무속에 대한 억압으로 많은 제의가 사라졌다. 단골들의 생활의 변화로 신을 더 이상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서구종교의 폭발적 증가 및 단골들의 고령화는 무속의 단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 대 경 1997, 『신들의 고향』, 증명.
- 김 헌 선 1999,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 서 대 석 1968, 『서사무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 수 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일연, 최호 譯 1996, 『삼국유사』, 흥신문화사.
- 임 석 재 1992,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 장 주 근 1986,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 赤松智晟·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1991,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제주도편』, 조선인쇄주식회사.
- 조 희 응 1996,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 진 성 기 1980, 『탐라의 신화』, 평범사.
- 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1993, 『제주도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 천주교 제주교구, 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빅벨.
- 秋葉隆, 심우성 옮김, 1993, 『朝鮮民俗誌』, 동문선.
- 하 순 애 2001, 『제주도연구 제 20집』, 제주학회.
- 현 길 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익사.
- 현 용 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국문초록

제주도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

강 권 용(국립민속박물관연구원)

본 연구는 제주도의 무속에서 채록되어진 본풀이 중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통해 특수본풀이들의 제의적 의의를 규명하고 무속서사시적 재인식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무속은 일반적으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지만 이 구분법에 속하지 않는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 한다.

필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 특수본풀이들이 과거 제주도 곳에서 불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천강본풀이>는 두 편이 채록이 되어있는데 하나는 “오날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떠나는 여행담이며 다른 하나는 “원천강”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죽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 본풀이는 심방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신긋에서 불려졌던 본풀이로 심방의 점사적 기능이 부각된 일반적인 심방들의 신화라 할 수 있다.

<세민황제본풀이>는 두 편이 채록이 되어있는데 공통적으로 당나라 세민황제가 지옥에서 이승 사람 매일장상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선행을 베푸는 내용이다. 제의적으로 차사영가 질질 때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서 이 본풀이를 부른다. 이 본풀이는 신앙민들에게 이승에서 선행을 베풀도록 하는 권선징악적 사고를 보여준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저승에 간 허궁애기가 이승을 왕래하다 약속을 어겨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의적으로 차사본풀이 동방세기본 다음에 불려지던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불명확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곳에서 이승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무속적 사고가 나타난다.

특수본풀이가 소멸된 이유는 곳의 내부적 요인으로 특수본풀이가 곳에서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의에서 특수한 심방만이 부르고 있어 일반화되지 못하여 전승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무속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단골들의 생활 변화가 주원인이며 새로운 종교의 유입은 제주도의 곳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핵심어 : 심방의 운명, 불교적 도덕률, 저승과 이승의 재구분, 독립적 제의의 미확보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 Main Explanations of Shamanistic Rituals in Jejudo

Gang, Gwon-Yong (Researcher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is thesis aims to recognize the shamanistic narrative characters in the rituals and stipulate their ceremonial meaning through 'woncheongang bonpuri (the main explanation of shamanistic ritual)', 'seminhwangje bonpuri', and 'heogungaegi bonpuri' recorded in Jeju shamanism.

Jeju shamanism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general main explanation of shamanistic ritual, the main explanation of ritual for villagers, and that of ritual for ancestors, but the main explanation of rituals not belong to these categories are named the special main story of shamanistic rituals.

I could understand that the special main story of shamanistic rituals had been sung in the past Jeju shamanism via the field study.

The two stories were recorded in 'Woncheongang bonpuri (main shamanistic ritual)': one is a travel story that 'onari' left to the woncheongang river to find his parents and the other is a story that a woman named 'woncheongang' made her husband dead. This main shamanistic story sung by the people to be fated to be a shaman in a new shamanistic ritual can be understood as a narrative of general shamans highlighted with shamans' divinatory functions.

The two stories composed of almost same contents were recorded in 'Seminhwangje bonpuri', which is a story that an emperor of the Chinese Tang Dynasty named 'semin' reincarnated with the help of a person named 'maeil jangsang' in this world and bestowed a good deed on the people. This story delivered the characteristics of promotion of virtue and reproof of vice to bestow a favor on the people.

The 'Heogungaegi bonpuri' is a story that a person named 'heogung-aegi' gone to the next

world didn't return to this world due to breaking his word. It takes charge of clearing the indefinite relation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world. I understood that the dead in the shamanistic rituals can communicate with the people of this world via this research.

The reason that the main story of shamanistic rituals disappeared in society is that the special main stories couldn't take up well in the rituals as the independent ritual and was handed down only to shamans not ordinary people in the interior factors and were not developed by reason of the suppression of society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religion in the exterior factors.

Key Words : Shaman's fate, The morality of Buddhism, Redivision of next world and this world, Not setting down as an indepent Ritual

日文抄録

濟州島特殊ポンプリに関する研究

康 権 用(国立民俗博物館研究員)

本研究は濟州島の巫俗において採録されたポンプリのうち天剛、〈袁ポンプリ〉、〈世民皇帝ポンプリ〉、〈嘘宮児ポンプリ〉を通じ特殊ポンプリの提意的な意義を究明し、巫俗叙事詩的な再認識を目的としている。

濟州島の巫俗は一般的に一般神ポンプリ、堂神ポンプリ、祖先神ポンプリに分けられるが、この区分に属さないポンプリを特殊ポンプリという。筆者は現地調査を通じ、特殊ポンプリが過去の濟州島のクッにおいて歌われていることを知った。

〈袁天剛ポンプリ〉は2編の採録がなされているが、ひとつは『オナリ』が両親を探し求めて袁天剛へと旅立つという旅の話であり、もうひとつは袁天剛という女性が夫を死に至らしめるという内容である。このポンプリは、巫人の運命のもとに生まれた者達によって神巫において歌われたポンプリで、巫人の占辞的な機能が浮彫りになった一般的な巫人の神話だと言える。

〈世民皇帝ポンプリ〉は2編の採録がなされているが、唐の世民皇帝が地獄からこの世の人間であ毎日日常の助けを得てよみがえり、善行を施すという内容である。祭儀的に差使靈加口演時、地獄の門を開く状況においてこのポンプリが歌われる。このポンプリには信者達にこの世で良い行いをするよう促す勸善懲悪的な思考が見て取れる。

〈嘘宮児ポンプリ〉は、あの世へ行行ったホグンエギがこの世と行き来する際約束を破り、二度とこの世に戻れなくなるという内容である。祭儀的に差使本解の東方朔本の次に歌われるものである。はっきりしないあの世とこの世の関係を明確にするという役割を果たしている。そして死んだ者はクッによりこの世の人間とも対話ができるという、巫俗的な思考が表れている。

特殊ポンプリが消滅してしまった理由は、クッの内部的な要因として特殊ポンプリがクッにおいて独立した祭儀を確保できず、祭儀において特殊な巫人のみが歌っており、一般化できずに伝承が途絶えてしまったためである。外部的な要因としては巫俗に対する社会的な抑圧と、クッの常連達の生活が変化したことが主な原因であり、新しい宗教の流入は濟州島のクッを危機に陥れている。

キーワード：巫人の運命、仏教的道德律、あの世とこの世の再区分、独立的祭儀の未確保

中文抄錄

济州岛巫俗“特殊bonpuri”研究

康 权 用(国立民俗博物馆研究员)

本文对济州岛巫俗的<袁天刚bonpuri><世民皇帝bonpuri><嘘宫儿bonpuri>进行了研究,旨在说明特殊bonpuri在祭祀仪式中的意义,并从巫俗叙事诗的角度对其进行重新解释。

济州岛的bonpuri大体可分为“普通神bonpuri”,“唐神bonpuri”和“祖先神bonpuri”,不属于这3种的就被称为“特殊bonpuri”。

笔者在实地考察中发现在过去济州岛没有“特殊bonpuri”。

<袁天刚bonpuri>在本文中共收录了两篇,一篇是“O-nal-i”去“袁天刚”寻找父母的旅行经历,另一篇讲的是一个为“袁天刚”的女子使丈夫死去的原因。这种bonpuri是由带着“巫人八字”出生的人在跳大神时唱的“bonpuri”,可以看作是宣扬寻访中占卜的作用的神话故事。

<世民皇帝bonpuri>在本文中收录了两篇。两篇“bonpuri”说的都是唐朝世民皇帝在地狱里得到每日长常的帮助而还生之后做了很多善是。在祭祀仪式中开地狱门时唱这一段。这个“bonpuri”劝诫信徒们在人世多行善事。

<嘘宫儿bonpuri>讲述的是去了黄泉的“嘘宫儿”往来于人世和黄泉之间结果违反了规定从不能再到人世来的故事。进行祭祀仪式时在唱完差使本解和东方朔本之后唱嘘宫儿bonpuri。其作用在于将人世和黄泉之间的模糊关系定分明,同时也反映了在“跳大神”的过程中死者可以与生人关系的思想。

特殊bonpuri消失的内在原因是因为只用特殊bonpuri不能独立的完成仪式,而且只有特殊的巫人可以演唱,不适于普及。外部原因是因为社会对巫俗信仰的压制以及常客们的生活情况的变化。新的宗教的进入使济州岛的“跳大神”文化面临着危机。

核心词：巫人的命运，佛教道德律，黄泉和人世的重新区分，不能独立完成仪式